

‘從陰引陽, 從陽引陰’의 해석과 활용에 대한 연구*

世明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教室¹

趙學俊¹ **

Interpretation and clinical meanings of *cong Yin yin Yang*(從陰引陽) *cong Yang yin Yin*(從陽引陰)

Jo Hak-jun¹ **

¹Dept. of Korean Medical Classics & Medical History, Semyung University

Objectives : I would find out the interpretation of *cong Yin yin Yang*(從陰引陽) *cong Yang yin Yin*(從陽引陰) in *Su Wen*(素問)·*Yin Yang Yin Xiang Da Lun*(陰陽應象大論) and its clinical meanings.

Methods : I had searched the opinions of annotators about this paragraph and compared treatment principles that TCM clinicians, such as Li Dong-yuan(李東垣), Zhang Jie-bin(張介賓), Yu Jia-yan(喻嘉言) developed.

Results : This paragraph is related to treatment principles of the paragraph *Yang bing zhi Yin*(陽病治陰) *Yin bing zhi Yang*.

Li Dong-yuan applied it to treatment principle of internal injuries(內傷病), Zhang Jie-bin extended its clinical meanings to the opposite treatment principles(反治) such as *gu han wu xie*(求汗於血) *sheng Qi wu Jing*(生氣於精), *yin huo gui yuan*(引火歸源) and *na Qi gui shen*(納氣歸腎), Yu Jia-yan used it as treatment principle of *tuozheng*(脫症).

Conclusion : This paragraph can mean several messages and be applied to several treatment principles.

Key words : *cong Yin yin Yang*(從陰引陽) *cong Yang yin Yin*(從陽引陰), opposite treatment principles(反治), *Su Wen*(素問)·*Yin Yang Yin Xiang Da Lun*(陰陽應象大論).

I. 序 論

韓醫學의 治法 또는 治療原則은 『內經』의 論述에서 기원하여 歷代 醫家들에 의해 꾸준히 發明되어 왔다.

그 중 『素問·至真要大論篇』에 “寒者熱之, 熱者寒之”¹⁾는 일반적인 寒證 또는 熱證에 대한 正治의 治

* 본 연구는 지식경제부의 지역혁신센터사업으로 수행되었음 (RIC-07-06-01).

** 교신저자 : 조학준. 충북 제천시 신월동 세명로 117번지. 세명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외과학교실.

Tel : 043-649-1347. Fax : 043-649-1702.

E-mail : palm01@hanmail.net

접수일(2013년 1월 14일), 게재확정일(2013년 2월 14일)

1)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서울. 1985. p.305.

法으로 간주되어 활용되고, “諸寒之而熱者, 取之陰; 熱之而寒者, 取之陽”²⁾은 陰虛內熱, 陽虛外寒 등의 虛症 治法으로 간주되어 활용되었다.

王冰은 뒤 문장에 대해 더욱 발명하여 “壯水之主, 以制陽光; 益火之源, 以消陰翳”라고 注釋함으로써 陰虛內熱에는 補腎水하고, 陽虛外寒에는 益心火하는 虛症의 治法으로 구체적으로 언급하였다.

한편 張景岳은 『素問陰陽應象大論』의 ‘從陰引陽, 從陽引陰’의 治法을 결합하여 ‘陰中求陽’, ‘陽中求陰’, ‘精中生氣’, ‘氣中生精’의 大法을 제기하여 左歸飲, 右歸飲 등의 處方을 만들었다고³⁾ 후세에 평가되고 있다.

그런데 陰陽의 상징성과 문장의 함축성으로 인해 ‘陰’과 ‘陽’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지 특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從’과 ‘引’의 뜻을 정확히 알기 곤란하다.

‘從陰引陽, 從陽引陰’에 대해 금⁴⁾은 相異한 解釋이 있음을 언급하지 않았고, 진⁵⁾은 李東垣의 內傷 측면에서 다루고 있으나 解釋과 應用의 다양성을 인지하지 못하였다.

한편 『新編醫學漢文』에서 ‘從陰引陽, 從陽引陰’과 ‘陽病治陰, 陰病治陽’의 관계에 대해 “從陽引陰은 陰病治陽과 같은데 陽虛外寒과 같은 證에 溫中補陽의 方法을 활용하는 것이고, 從陰引陽은 (陽病治陰과 같은데)⁶⁾ 陰虛內熱과 같은 證에 滋陰의 方法을 활용하는 것이 이것이다.”⁷⁾라고 하여 비교적 명쾌하게 지적하였으나 그 근거가 부족하다.

『內經』의 歷代 注釋家와 李東垣, 唯嘉言 등의 ‘從陰引陽, 從陽引陰’에 대한 글을 검토한 결과, 그 해석과 활용이 다양함을 발견하였다.

또한 王冰을 비롯한 많은 醫家들이 ‘從陰引陽, 從陽引陰’을 ‘陽病治陰, 陰病治陽’의 治療原則으로 활용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陽病治陰, 陰病治陽’을 근거로 ‘從陰引陽, 從陽引陰’ 중 ‘陰陽’, ‘從’, ‘引’의 해석을 비교하고, 그 글귀가 어떤 내용의 臨床理論으로 발전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II. 本 論

『素問陰陽應象大論』에 “善用鍼者, 從陰引陽, 從陽引陰, 以右治左, 以左治右, 以我知彼, 以表知裏, 以觀過與不及之理, 見微得過, 用之不衰.”⁸⁾와 “審其陰陽, 以別柔剛, 陽病治陰, 陰病治陽, 定其血氣 各守其鄉, 血實宜決之, 氣虛宜掣引之.”⁹⁾라는 문장이 있다.

‘從陰引陽, 從陽引陰’과 ‘陽病治陰, 陰病治陽’에 대한 歷代 注釋家들의 견해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孫思邈의 견해

孫思邈은 『備急千金要方』에서 ‘從陰引陽, 從陽引陰’에 대해 “무릇 陽邪는 五臟을 해치고 陰邪는 六腑를 손상시킨다. 陽이 實하면 從陰引陽하고 陰이 虛하면 從陽引陰한다.”¹⁰⁾라고 하였다.

이를 통해 孫思邈은 ‘從陰引陽, 從陽引陰’을 陰陽의 邪氣로 臟腑의 虛實이 발생할 때 치료하는 원칙으로 응용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으나, ‘從陰引陽, 從陽引陰’의 뜻이나 그 임상적 응용은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

그가 말한 ‘從陰引陽’과 ‘陽病治陰’의 개념을 간략히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2)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서울. 1985. p.305.

3) 尹暢烈 編譯. 韓中醫學各家學說. 대전. 周珉出版社. 2006. p.151.

4) 金경수. 『素問陰陽應象大論』에 對한 研究.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0.

5) 진주표. 李東垣 內外傷辨의 醫史學的 考察.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6) 譯者註: 본래 없던 내용이지만 문맥상 필요한 문구이므로 보충하였다.

7) 金경수, 김기욱 외 26인. 新編醫學漢文. 大田. 周珉出版社. 2009. p.124.

8)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서울. 1985. p.25.

9)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서울. 1985. p.25.

10) 孫思邈. 備急千金要方. 大星文化社. 서울. 1992. p.600. “凡陽邪害五臟, 陰邪損六腑. 陽實則從陰引陽, 陰虛則從陽引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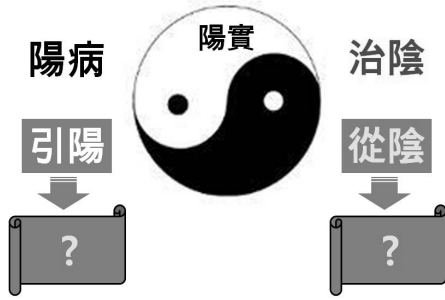


그림 1. 孫思邈의 ‘從陰引陽’과 ‘陽病治陰’

2. 王冰의 견해

王冰은 ‘陽病治陰, 陰病治陽’에 대해 “이른바 ‘從陰引陽, 從陽引陰’과 ‘以右治左, 以左治右’이다”¹¹⁾라고 하였다.

이를 통해 王冰은 ‘陽病治陰, 陰病治陽’은 ‘從陰引陽, 從陽引陰’과 ‘以右治左, 以左治右’을 포괄하는 개념임을 지적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孫思邈과 마찬가지로 ‘從陰引陽, 從陽引陰’의 뜻이나 응용을 알 수 없다.

王冰이 註釋한 “壯水之主, 以制陽光; 益火之源, 以消陰翳”¹²⁾에 근거하여, ‘從陰引陽’과 ‘陽病治陰’의 개념을 추리하여 간략히 나타내면 그림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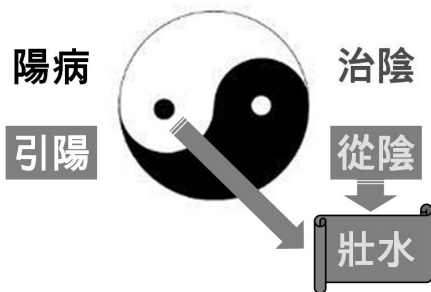


그림 2. 王冰의 ‘從陰引陽’과 ‘陽病治陰’

3. 楊上善의 견해

楊上善은 『靈樞終始』의 “脈口一盛, 瀉足厥陰而補足少陽”¹³⁾에 따라서 “肝臟 足厥陰脈이 實하고 肝腑膽 足少陽脈이 虛하면 모름지기 厥陰을 瀉하고 少陽을 補하는 것이 곧 ‘從陰引陽’이다.”라고 하고, “人迎一盛, 瀉足少陽而補足厥陰”¹⁴⁾에 따라서 “만약 少陽이 實하고 厥陰이 虛하면 모름지기 少陽을 瀉하고 厥陰을 補하는 것이 곧 ‘從陽引陰’이다. 나머지 예도 이것을 따른다.”¹⁵⁾고 하였다.

이를 통해 그가 말한 陰陽은 經脈을 가리켰으며, 陰陽經 중 어느 하나만 다스린 것이 아니라, 함께 다스렸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그는 ‘陽病治陰, 陰病治陽’에 대해 “陰經이 邪氣를 받으면 陽經에 흘러들어가서 병이 되니 陰經이 本이 되고 陽經이 標가 된다. 그 근본을 치료하려면 陰經을 치료해야 하니 곧 ‘陽病療陰’이다. 陽經이 邪氣를 받으면 陰에 準하여 陽을 다스리니 곧 ‘陰病療陽’이다. 사람의 陰陽 二經은 陰經이 만약 實하면 陽經이 반드시 虛하고 陽經이 만약 實하면 陰經이 반드시 虛하므로 陽虛로 병든 자는 瀉陰이 마땅하고 陰實로 병든 자는 補陽이 마땅하다.”¹⁶⁾라고 하였다.

그가 말한 ‘陽病’은 陽經이 邪氣를 받은 것이고 ‘治陰(療陰)’은 陰經까지 과급된 邪氣를 치료하는 것이며, ‘陰病’은 陰經이 邪氣를 받은 것이고 ‘治陽(療陽)’은 陽經까지 과급된 邪氣를 치료하는 것을 가리킨다.

즉, 楊上善은 ‘陽病’과 ‘陰病’을 각각 陽虛(陰盛), 陰虛(陽盛)의 標病(後病)으로 이해하고, ‘治陰(瀉陰

13)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서울. 1985. p.71.

14)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서울. 1985. p.71.

15) 楊上善. 黃帝內經太素. 大星文化社. 서울. 1991. p.32. “肝臟足厥陰脈實, 肝腑膽足少陽脈虛, 須瀉厥陰以補少陽, 卽從陰引陽也. 若少陽實, 厥陰虛, 須瀉少陽以補厥陰, 卽從陽引陰也. 餘例準此.”

16) 楊上善. 黃帝內經太素. 大星文化社. 서울. 1991. p.34. “陰經受邪, 流入陽經爲病, 是爲陰經爲本, 陽經爲標. 療其本者, 療於陰經, 卽陽病療陰也. 陽經受邪, 準陰療陽也, 卽陰病療陽也. 人陰陽二經, 陰經若實, 陽經必虛, 陽經若實, 陰經定虛, 故陽虛病者宜瀉陰, 陰實病者宜補陽也.”

11) 윤창열, 이남구, 김선호. 黃帝內經素問 王冰注(上). 주민출판사. 대전. 2003. p.152. “所謂從陰引陽, 從陽引陰 以右治左 以左治右者也”

12) 윤창열, 이남구, 김선호. 黃帝內經素問 王冰注(下). 주민출판사. 대전. 2003. p.546.

補陽)’과 ‘治陽(瀉陽-補陰)’을 本病(先病)의 치료로 이해하였다.

그가 말한 ‘從陰引陽’과 ‘陽病治陰’의 개념을 간략히 나타내면 그림 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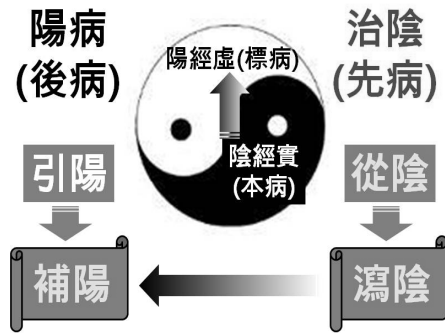


그림 3. 楊上善의 ‘從陰引陽’과 ‘陽病治陰’

4. 李東垣의 견해

李東垣은 ‘從陰引陽, 從陽引陰’과 ‘陽病治陰, 陰病治陽’에 대해 『脾胃論-陰病治陽陽病治陰』에서 “무릇 陰病在陽이란 것은 天外 風寒의 邪가 속이 虛함을 타서 밖에서 들어와서 사람 등 위의 臟腑, 腑腑에 있는 것을 말한다. 사람이 天외의 客邪를 받는 것도 두 가지 학설이 있다. 첫째는 陽에 적중하면 經脈으로 흐르니 이 병은 外寒에서 시작하여 결국¹⁷⁾ 外熱로 귀결되므로 風寒의 邪를 다스려서 그 각 臟의 腧穴을 치료한다. 둘째는 風寒에 그칠 따름이 아니다. 六淫 濕暑燥火가 모두 五臟이 받는 바, 결국 筋骨血脈까지 邪를 받으니 각각 등 위의 五臟腧穴에서 제거한다. 傷寒 一說은 仲景을 따르니 八風에 적중한 경우는 (그 치료가) 風論에 있고, 暑에 적중한 경우는 그 치료가 등 위의 小腸腧穴에 있고 濕에 적중한 경우는 그 치료가 胃腧에 있고, 燥에 적중한 경우는 그 치료가 大腸腧에 있다. 이는 모두 六淫 客邪로 인한 有餘의 病이니 모두 등 위의 六腑 腧穴에서 瀉한다. 만약 병이 오래되어 傳變하면 虛實의 차이가

있으니, 병의 傳變에 따라 補瀉가 일정하지 않지만 오로지 背腑 腧穴에서 치료한다. 이 외에 上熱下寒이 있다. 『內經』에 가로되 ‘陰病在陽은 마땅히 從陽引陰해야 하니 반드시 먼저 絡脈과 經隧의 瘀血을 제거해야 한다. 만약 陰中에 火가 왕성하여 하늘로 솟아올라 六陽이 도리어 衰하지 않고 上充한 경우는 먼저 五臟의 血絡을 제거하여 이끌어 下行케 하니 天氣가 下行하면 下寒의 病이 저절로 제거된다. 결코 유독 그 六陽만을 瀉해서는 안 된다. 이 병은 陽亢에 다시 陰火의 邪가 더욱 심하게 한 것이니 단지 陰火만 제거하거나 단지 血絡 經隧의 邪만을 瀉해야 지 잘못해서는 안 된다.”¹⁸⁾고 하였다.

이로써 그가 말한 ‘陰病’은 風寒의 外感을 가리키고, ‘在陽’은 邪氣가 背俞穴에 있음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 이때의 ‘陰’은 風寒의 陰邪를 뜻하고 ‘陽’은 背腧의 表를 뜻한다.

그는 또 “陽病在陰은 마땅히¹⁹⁾ 從陰引陽해야 하니, 이는 水穀의 寒熱에 감촉되면 사람의 육부를 해친다는 것이다. 또한 가로되 飲食失節 및 勞役形質로 인해 陰火가 坤土의 中을 틈타서 穀氣, 營氣, 清氣, 胃氣, 元氣가 상승하지 못하게 하여 六腑의 陽氣를 더하여 결국 五陽의 氣가 먼저 ‘밖’에서 끊어지게 된다. ‘밖’이란 ‘天’을 말한다. (元氣가) 下流하여 坤土 陰火의 속에 잠복한다. 모두 먼저 喜怒悲憂恐의 五賊에 의해 傷하고 나서 그 뒤에 胃氣가 運行하지 않고 勞役과 飲食不節이 뒤따르면 元氣가 결국 손상된다. 마땅히 胃의 合穴인 足三里穴에 推拿 揚

18) 張年順 等. 李東垣醫學全書脾胃論. 中國中醫藥出版社. 中國 北京. 2006. p.55. “夫陰病在陽者, 是天外風寒之邪乘中而外入, 在人之背上腑臟腧, 是人之受天外客邪. 亦有二說: 中於陽則流於經. 此病始於外寒, 絡歸外熱, 故以治風寒之邪, 治其各臟之腧; 非止風寒而已, 六淫濕暑燥火, 皆五臟所受, 乃筋骨血脈受邪, 各有背上五臟腧以除之. 傷寒一說從仲景, 中八風者, 有風論; 中暑者, 治在背上小腸腧; 中濕者, 治在胃腧; 中燥者, 治在大腸腧. 此皆六淫客邪有餘之病, 皆瀉在背之腑腧. 若病久傳變, 有虛有實, 各隨病之傳變, 補瀉不定, 只治在背腑腧. 另有上熱下寒. 經曰 陰病在陽, 當從陽引陰, 必須先去絡脈經隧之血. 若陰中火旺, 上騰於天, 致六陽反不衰而上充者, 先去五臟之血絡, 引而下行, 天氣降下, 則下寒之病自去矣, 慎勿獨瀉其六陽. 此病陽亢, 乃陰火之邪滋之, 只去陰火, 只損血絡經隧之邪, 勿誤也.”

19) 譯者註: 본래 ‘病’字로 되어 있으나 앞의 ‘陰病在陽, 當從陽引陰’의 구절에 비추어 ‘當’字로 보아야 한다.

17) 譯者註: 본래 ‘絡’字로 되어 있으나 ‘始’와 對句이므로 ‘終’字로 보아야 한다.

法으로 刺鍼하여 元氣를 펴게 해야 하므로 **從陰引陽**이라 한다.”²⁰⁾라 하였다.

이로써 그가 말한 ‘陽病’은 內傷의 水穀, 勞倦로 발생한 陰火를 가리키고, ‘在陰’은 邪氣가 ‘坤土의 中’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 이때의 ‘陽’은 陰火의 火를 뜻하고 ‘陰’은 몸 속(中)을 뜻한다.

특히, 그가 말한 ‘經曰 陰病在陽, 當從陽引陰’은 아마도 『素問陰陽應象大論』을 가리키는 듯하지만, 완벽히 동일한 구절은 없다. 이는 그가 자신의 의견에 맞게 변형하여 인용한 것이다.

다만 ‘陰病在陽’은 陰寒의 傷寒病(陰病)이 背腧穴 등의 表에 있고(在陽), ‘陽病在陰’은 陽熱의 內傷病(陽病)이 脾胃 등의 裏에 있음(在陰)을 언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陽病治陰, 陰病治陽’과 ‘從陽引陰 從陰引陽’의 관계에 대해 “陰病在陽, 當從陽引陰 …… 陽病在陰者, 病從陰引陽”²¹⁾라고 분석하여, ‘陰病在陽’을 ‘從陽引陰’의 원칙으로 치료하고 ‘陽病在陰’을 ‘從陰引陽’의 원칙으로 치료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 『脾胃論調中益氣湯』에서 “『黃帝針經』에 이르되 ‘아래로부터 올라가는 것은 끊어서 제거한다.’고 하였으니 上氣로 不足하면 밀어서 드날린다. 대개 上氣하는 경우는 陽病在陰에 從陰引陽하니 마땅히 腎肝 下焦로 들어가는 藥을 사용하되, 甘多辛少한 藥으로 이끌어 脾胃의 氣를 升發케 하여 腠理와 皮膚를 통해 그 邪氣를 제거한다.”²²⁾라고 하였다.

이로써 그는 ‘陽病在陰’에 속하는 內傷病은 ‘從陰

引陽’의 원칙에 따라서 치료하니, 下焦에 들어가는 藥(陰味)을 사용하는 것은 ‘從陰’에 속하고 甘多辛少한 藥(陽味)을 약간 더하여 이끄는 것은 ‘引陽’에 속한다고 분석했음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그가 말한 ‘陽病’은 內傷에 속하는 內熱(陰火)을, ‘在陰’은 裏와 下焦를, ‘從陰’은 下焦에 들어가는 藥(陰味)을 사용하는 것을, ‘引陽’은 甘多辛少한 藥(陽味)을 약간 더하는 것을 지칭한 것이다.

그가 말한 ‘從陰引陽’과 ‘陽病在陰’의 개념을 간략히 나타내면 그림 4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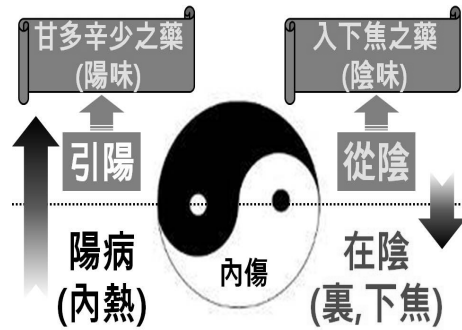


그림 4. 李東垣의 ‘從陰引陽’과 ‘陽病在陰’

5. 馬蒔의 견해

馬蒔은 ‘從陰引陽, 從陽引陰’에 대해 刺鍼하는 원칙으로 해석하여 “이 문장은 鍼을 잘 놓는 사람이 法度가 있음을 말한 것이다. 위 문장은 皮毛로부터 점차 臟腑로 들어오면, 밖에 있는 것은 表가 되고 안에 있는 것은 裏가 되며, 表에 있는 것은 陽이 되고 裏에 있는 것은 陰이 됨을 말하였다. 鍼을 잘 사용하는 자는 陽病은 반드시 陰으로 行함을 알기 때문에 從陰引陽하고, 陰病은 반드시 陽으로 行함을 알기 때문에 從陽引陰한다.”²³⁾고 하였다.

또 “『難經·六十七難』에 가로되, ‘五臟은 募穴이

20) 張年順 等. 李東垣醫學全書脾胃論. 中國中醫藥出版社. 中國 北京. 2006. p.55. “陽病在陰者, 病從陰引陽, 是水穀之寒熱, 感則害人六腑. 又曰: 飲食失節, 及勞役形質, 陰火乘於坤土之中, 致穀氣營氣清氣胃氣元氣不得上升, 滋於六腑之陽氣, 是五陽之氣先絕於外, 外者, 天也. 下流伏於坤土陰火之中. 皆先由喜怒哀憂恐, 爲五賊所傷, 而後胃氣不行, 勞役飲食不節繼之, 則元氣乃傷. 當從胃合三里穴中推而揚之, 以伸元氣, 故曰從陰引陽.”

21) 張年順 等. 李東垣醫學全書脾胃論. 中國中醫藥出版社. 中國 北京. 2006. p.55. “陰病在陽, 當從陽引陰, …… 陽病在陰者, 病從陰引陽”

22) 張年順 等. 李東垣醫學全書脾胃論. 中國中醫藥出版社. 中國 北京. 2006. p.49. “『黃帝針經』云 從下上者, 引而去之, 上氣不足, 推而揚之. 蓋上氣者, 心肺上焦之氣, 陽病在陰, 從陰引陽, 宜以入腎肝下焦之藥, 引甘多辛少之藥, 使升發脾胃之氣, 又從而去其邪氣於腠理皮毛也.”

23) 馬蒔. 黃帝內經素問注證發微. 大星文化社. 서울. 1994. p.51. “此言善鍼者之有法也. 上文言由皮毛而漸入臟府, 則在外爲表, 在內爲裏, 在表爲陽, 在裏爲陰. 善用鍼者, 知陽病必行於陰也, 故從陰以引之而出於陽; 知陰病必行於陽也, 故從陽以引之而入於陰.”

다 陰에 있고 輸穴이 陽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이르는가? 그렇다. 陰病은 陽으로 行하고 陽病은 陰으로 행하므로 募穴로 하여금 陰에 있고 輸穴로 하여금 陽에 있게 한다고 하였다. 이는 등과 배를 陰과 陽이라고 가리키는 특별한 한 가지 실마리일 뿐이다. 그러나 鍼法の '從陰引陽, 從陽引陰'은 이것에만 그치지 않는다. 『靈樞』의 「終始」, 「禁服」, 「四時氣」篇에서 '人迎脈이 盛하여 陽經의 病이 되면 陽을 瀉하고 陰을 補하며, 氣口脈이 盛하여 陰經의 病이 되면 陰을 瀉하고 陽을 補하니 補瀉가 잘 배풀어져서 陰陽이 調和를 이룬다.'고 하였으니 이것 또한 '從陰引陽, 從陽引陰'의 法이다."²⁴⁾라고 하였다.

위의 두 글을 통해, 그는 '從陰引陽, 從陽引陰'을 刺鍼原則으로 이해하되, '從陰引陽, 從陽引陰'을 同篇의 '以右治左, 以左治右'와 구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以右治左, 以左治右'는 繆刺法 또는 巨刺法으로 이해한 데 반해, '從陰引陽, 從陽引陰'은 『難經』의 配穴原則에 근거하여 '以前治後, 以後治前'함으로써 腹募穴 또는 背腧穴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확대하였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그는 人迎氣口脈法에 의해 그 치료를 결정한 『靈樞』를 따랐으나, 楊上善의 견해와 다르다는 것이다.

가령 '從陰引陽'을 楊上善은 瀉陰補陽의 두 가지 治法으로 이해한 데 반해, 그는 養陰의 한 가지 治法으로 이해하였기에, '從陰引陽'에 대한 동일한 해석이라고 볼 수 없다.

그가 말한 刺鍼에 대한 '從陰引陽'과 '陽病治陰'의 개념을 정리하여 나타내면 그림 5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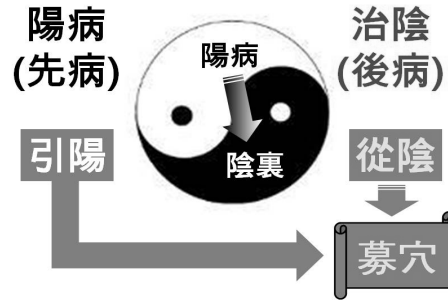


그림 5. 馬蒔의 '從陰引陽'과 '陽病治陰'(刺鍼原則)

그는 '陽病治陰, 陰病治陽'에 대해 "陽이 偏勝하면 陰이 虛하므로 陽病治陰하니 滋陰養陰해야 하고, 陰이 偏勝하면 陽이 虛하므로 陰病治陽하니 壯陽시켜 陰陽을 平형하게 해야 한다."²⁵⁾고 하여 '陽病治陰, 陰病治陽'을 『素問陰陽應象大論』의 "陰勝則陽病, 陽勝則陰病"²⁶⁾의 治法과 연관 지어 설명하였다.

그가 말한 '陰勝'과 '陽勝'은 氣味の 陰陽의 太過를 가리키고, '陽病'과 '陰病'은 陽分 또는 陰분이 병들면 결국 상대인 陰分 또는 陽分까지 영향을 미쳐 서로 병들게(虛하게) 된다는 의미로 보았다.²⁷⁾

25) 馬蒔. 黃帝內經素問注證發微. 大星文化社. 서울. 1994. pp.53-54. "陽病, 必行於陰, 故陽病治陰, 則從陰以引於陽而陽病可去; 陰病, 必行於陽, 故陰病治陽, 則從陽以引於陰而陰病可去."

○吳語譯: ○景岳: 陽勝者 陰必病이오 陰勝者 陽必病이라 ○李: 陽勝者 陰傷하니 治其陰者 補水之注也. 陰勝者 陽傷하니 治其陽者 補水中之火也라 ○張: 治는 平治也니 如感天之陽邪 則當治人之陰氣하야 陰氣盛則陽熱之邪自解矣. 如感天之陰邪 則當治人之陽氣하야 陽氣盛而陰寒之邪自散矣라 ○高: 陽盛則陰虛 故로 陽病當治其陰이오 陰盛則陽虛 故로 陰病當治其陽이라 ●白話解: 陽盛陰虛의은 滋其陰하고 陰盛陽虛의은 壯其陽하야 使陰陽之氣로 得其平衡이라

26)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서울. 1985. p.25.

27) 馬蒔. 黃帝內經素問注證發微. 大星文化社. 서울. 1994. pp.38. "此申言氣味太過者, 必有所傷, 而又推言形氣受傷於寒熱者, 有各病互病之機也. …… 故用酸苦涌泄之品 至於太過 則陰勝矣. …… 陰勝 則吾人之陽分不能敵陰品, 而陽分斯病也. 陽主人身陽分言, 凡人身之屬陽分, 與手足六陽經皆是. 用辛甘發散之品, 至於太過則陽勝矣. 陽承上文物類而言, 陽勝則吾人之陰分不能敵陽品, 而陰分斯病也. 陰主人身陰分言, 凡人身之屬陰分, 與手足六陰經皆是. 所謂陽勝則陰病者, 何也. 蓋以陽勝則太熱, 彼陰分安得而不病乎. 所謂陰

24) 馬蒔. 黃帝內經素問注證發微. 大星文化社. 서울. 1994. p.51. "難經六十七難曰 五藏募皆在陰, 而俞在陽者, 何謂也. 然陰病行陽, 陽病行陰, 故令募在陰, 俞在陽. 此乃指背腹爲陰陽特一端耳. 然鍼法之從陰引陽, 從陽引陰, 不止於此. 靈樞終始禁服四時氣篇: 人迎脈盛, 爲陽經病, 則瀉陽補陰; 氣口脈盛, 爲陰經病, 則瀉陰補陽, 補瀉施而陰陽和, 亦從陰引陽, 從陽引陰之法也."

그가 말한 用藥에 대한 ‘從陰引陽’과 ‘陽病治陰’의 개념을 간략히 나타내면 그림 6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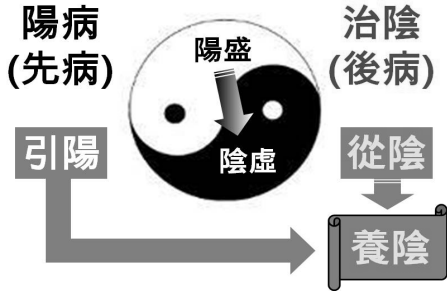


그림 6. 馬蒔의 ‘從陰引陽’과 ‘陽病治陰’(用藥原則)

결론적으로, 馬蒔는 ‘陽病’과 ‘陰病’을 각각 ‘陽盛’와 ‘陰虛’로 인한 先病으로 이해하고 ‘治陰’과 ‘治陽’을 ‘陰虛’와 ‘陽虛’로 인한 後病의 치료로 이해한데 반해, 楊上善의 ‘陽病’과 ‘陰病’은 標病(後病)으로 이해하고 ‘治陰’과 ‘治陽’은 本病(先病)의 치료로 이해하였으니, 그 標本(先後)가 相反된다.

6. 吳昆의 견해

吳昆은 ‘從陰引陽, 從陽引陰’에 대한 註釋은 하지 않고, 대신 ‘陽病治陰, 陰病治陽’에 대해 “刺法에 ‘從陰引陽, 從陽引陰’이 있고, 湯液에는 ‘陽盛養陰, 陰盛養陽’이 있으니 둘 다 ‘陽病治陰, 陰病治陽’이라고 한다.”²⁸⁾라고 하였다.

그가 ‘從陰引陽’ ‘從陽引陰’은 刺法의 원칙이고, ‘陽盛養陰, 陰盛養陽’은 用藥의 원칙인데 모두 ‘陽病治陰, 陰病治陽’에 해당한다고 한 것은, 馬蒔의 의견을 따른 것이다.

또한 ‘陰勝則陽病 陽勝則陰病’에 대해 “수가 이기면 화가 꺼지고 화가 이기면 수가 마른다.”²⁹⁾고 하였으니, ‘陰勝’과 ‘陽勝’은 ‘水勝’ ‘火勝’을 가리키고

勝則陽病者, 何也. 蓋以陰勝則太[大]寒, 彼陽分安得而不病乎.”

28) 郭君雙 主編, 吳昆醫學全書黃帝內經素問吳注, 중국 북경, 1999. p.222. “刺法有從陰引陽, 從陽引陰; 湯液有陽盛養陰, 陰盛養陽, 皆謂之陽病治陰, 陰病治陽.”

29) 郭君雙 主編, 吳昆醫學全書黃帝內經素問吳注, 중국 북경, 1999. p.217. “水勝則火滅; 火勝則水乾.”

‘陽病’ ‘陰病’은 ‘陽虛’ ‘陰虛’를 가리킨다.

그가 말한 ‘從陰引陽’과 ‘陽病治陰’의 개념을 간략히 나타내면, 앞의 그림5, 그림 6과 같다.

7. 張介賓의 견해

張介賓은 ‘從陰引陽, 從陽引陰’에 대해 “鍼을 잘 사용하는 자는 반드시 陰陽을 살핀다. 陰陽의 의의는 한 가지 실마리에 그치지 않으니, 예를 들어 表裏와 氣血과 經絡과 臟腑와 上下左右에 구분이 있음과 하루 중 12時辰과 한 달 중 30일에 衰旺의 구분이 있는 것이다. ‘從陰引陽’이란 것은 病이 陽에 있거늘 그 陰을 다스리는 것이고, ‘從陽引陰’이란 것은 病이 陰에 있거늘 그 陽을 다스리는 것이다.”³⁰⁾라고 하였으니, 馬蒔 등과 마찬가지로 刺鍼의 원칙으로 해석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는 ‘從陰引陽, 從陽引陰’과 ‘陽病治陰, 陰病治陽’의 관계에 대해 “陽이 이긴 경우는 陰이 반드시 병 들고 陰이 이긴 경우는 陽이 반드시 병든다고 하니 가령 「至真要大論」에서 ‘寒涼로 치료하였거늘 도리어 發熱하는 경우는 陰에서 取하고 溫熱로 치료했거늘 도리어 惡寒하는 경우는 陽에서 取한다.’고 하니 啓玄子가 가로되 ‘水의 主體를 健壯케 하여 陽의 光을 제압하고, 火의 근원을 補益하여 陰의 가림을 사라지게 한다.’고 하였다. 이것이 모두 ‘陽病治陰, 陰病治陽’하는 道이며, 또한 上文의 ‘從陰引陽, 從陽引陰’의 뜻이다.”³¹⁾라고 하여 ‘從陰引陽, 從陽引陰’과 ‘陽病治陰, 陰病治陽’이 모두 王冰이 발명한 虛症 治法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는 王冰의 뜻을 더욱 발명하여 ‘從陰引陽, 從陽引陰’을 ‘水中取火, 火中取水’와 연관 지어 『景岳全書

30) 張介賓. 類經(上)論治類. 大星文化社. 서울. 1990. p.237. “善用鍼者, 必察陰陽. 陰陽之義, 不止一端. 如表裏也, 氣血也, 經絡也, 臟腑也, 上下左右有分也, 時日衰旺有辨也. 從陰引陽者, 病在陽而治其陰也; 從陽引陰者, 病在陰而治其陽也.”

31) 張介賓. 類經(上)論治類. 大星文化社. 서울. 1990. p.238. “陽勝者陰必病 陰勝者陽必病 如至真要大論曰 諸寒之而熱者取之陰 熱之而寒者取之陽 啓玄子曰 壯水之主以制陽光 益火之源 以消陰翳 皆陽病治陰, 陰病治陽之道也 亦上文從陰引陽從陽引陰之義”

陰陽』에서 “陰은 陽에게 뿌리를 두고 陽은 陰에게 뿌리를 둔다. 무릇 病에 가히 바로 다스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 마땅히 從陽하고 引陰하며, 從陰하고 引陽하여 각각 그 屬한 것을 求하여 衰하도록 한다. 가령 脈을 皮에서 求하고, 氣를 精에서 생겨나게 함이 從陽引陰이고, 또한 가령 火를 이끌어 근원으로 돌아가게 하고 氣를 들여서 腎으로 돌아가게 함이 從陰引陽이다. 이것은 곧 水中에서 火를 取하고 火中에서 水를 取하는 의의이다.”³²⁾라고 하였다.

이 문장에서 그가 ‘從陰引陽’을 ‘水中取火’와 ‘從陽引陰’을 ‘火中取水’와 연결했는지, 아니면 ‘從陰引陽’을 ‘火中取水’와 ‘從陽引陰’을 ‘水中取火’와 연결했는지 분명하지 않다.

‘求汗於血’ ‘生氣於精’이 從陽引陰에 해당하고 ‘引火歸源’ ‘納氣歸腎’이 從陰引陽에 해당한다고 언급한 것으로부터 미루어 본다면, ‘求汗於血’ ‘生氣於精’은 水中取火에 해당하므로 從陽引陰이 그에 해당되고, ‘引火歸源’과 ‘納氣歸腎’은 火中取水에 해당하므로 從陰引陽에 그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이로부터 미루어보면 火中取水에서 ‘取水’는 ‘從陰’에 해당하고 ‘火中’은 ‘引陽’에 해당하고, 水中取火에서 ‘取火’는 ‘從陽’에 해당하므로 ‘水中’은 ‘引陰’에 해당한다.

그는 ‘從陰引陽, 從陽引陰’을 각각 ‘水中取火, 火中取水’의 用藥 原則으로 확장하여 해석하였는데, 예를 들어 『類經(上)疾病類五實五虛死附虛損治法』에서 “무릇 虛를 다스리는 요점은 모든 陰虛로 陰虛內熱이 많은 자는 辛燥한 藥을 가장 싫어하니 陽邪를 도울까 두렵기 때문이고 더욱 苦寒한 藥도 꺼리니 生陽을 伐할까 두렵다. 오직 純甘壯水의 制劑를 좋아하니 補陰하여 配陽하면 剛이 柔에게 제압되어 虛火가 스스로 내려서 陽이 陰에게 돌아온다. 陽虛로 外寒이 많은 자는 涼潤한 藥을 싫어하니 陰邪를 도울까 두렵기 때문이고 더욱 辛散을 꺼리니 陰氣를

상할까 두렵다. 다만 甘溫益火의 藥品이 마땅하니 補陽하여 配陰하면 柔가 그 주인을 얻어서 沈寒이 스스로 거 뒤 陰이 陽을 따른다.”³³⁾고 하였다.

또한 『類經(上)疾病類五實五虛死附虛損治法』과 『景岳全書傳忠錄陽不足再辨』에서 “무릇 陽虛로 外寒이 많은 자는 甘溫으로써 補함이 마땅하지, 清潤한 藥이 마땅하지 않다. 陰虛로 陰虛內熱이 많은 자는 甘涼으로써 補함이 마땅하지, 辛燥한 따위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마땅함을 알고 疴함을 알면 오직 補藥을 잘 사용할 뿐만 아니라 八方의 制劑를 모두 가히 얻어 貫通할 수 있으리라.”³⁴⁾라고 하였다.

위의 두 문장을 통해, 그는 ‘從陰引陽(陽病治陰에 해당)’을 補陰配陽의 원칙으로 해석하여 陰虛內熱에 辛燥(陽虛證의 用藥에 해당) 또는 苦寒한 藥(實證의 瀉火藥에 해당)을 사용하는 대신에 純甘(甘涼)壯水之劑를 사용하여 虛火를 내리고, ‘從陽引陰(陰病治陽에 해당)’을 ‘補陽配陰’의 원칙으로 해석하여 陽虛外寒에 涼潤(陰虛證의 用藥에 해당) 또는 辛散한 藥(表實證의 藥에 해당)을 사용하는 대신에 甘溫益火之品을 사용하여 沈寒을 사라지게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 『新編醫學漢文』에서 從陽引陰은 陰病治陽과 같은데 陽虛外寒과 같은 證에 溫中補陽의 方法을 활용하는 것이고, 從陰引陽은 陽病治陰과 같은데 陰虛內熱과 같은 證에 滋陰의 方法을 활용하는 것”³⁵⁾이라는 내용도 위의 두 문장에 근거한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張介賓이 ‘陽病’과 ‘陰病’을 각각 ‘陰虛(內熱)’과 ‘陽虛(外寒)’으로 이해하고 ‘治陰’과 ‘治陽’의 방법을 각각 滋陰과 溫陽으로 이해한 것이다.

‘陽病’과 ‘陰病’의 陰陽을 구분한 기준에 대해 張

32) 張介賓, 景岳全書傳忠錄, 法仁文化社, 서울, 2007, p.75. “陰根於陽, 陽根於陰. 凡病有不可正治者, 當從陽以引陰, 從陰以引陽, 各求其屬而衰之. 如求汗於血, 生氣於精, 從陽引陰也. 又如引火歸源, 納氣歸腎, 從陰引陽也. 此即水中取火, 火中取水之義.”

33) 張介賓, 類經(上)疾病類, 大星文化社, 서울, 1990, p.308. “治虛之要 凡陰虛多熱者 最嫌辛燥 恐助陽邪也 尤忌苦寒 恐伐生陽也 惟喜純甘壯水之劑 補陰以配陽 則剛爲柔制 虛火自降 而陽歸乎陰矣 陽虛多寒者 最嫌涼潤 恐助陰邪也 尤忌辛散 恐傷陰氣也 只宜甘溫益火之品 補陽以配陰 則柔得其主 沈寒自斂 而陰從乎陽矣”

34) 張介賓, 景岳全書傳忠錄, 法仁文化社, 서울, 2007, p.76. “故凡陽虛多寒者, 宜補以甘溫, 而清潤之品非所宜; 陰虛多熱者, 宜補以甘涼, 而辛燥之類不可用. 知宜知避, 則不惟用補, 而八方之制, 皆可得而貫通矣.”

35) 金경수, 김기욱 외 26인, 新編醫學漢文, 大田, 周珉出版社, 2009, p.124.

介賓과 馬蒔의 관점을 비교하면, 張介賓은 각각 ‘陰虛’와 ‘陽虛’의 虛證에서 나타나는 ‘內熱(陽病에 해당)’과 ‘外寒(陰病에 해당)’의 症狀을 기준으로 한 데 반해, 馬蒔는 각각 實證과 虛證이 동반한 ‘陽盛陰虛(陽病에 해당)’와 ‘陰盛陽虛(陰病에 해당)’에서 陽盛, 陰盛과 같은 實證을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결론적으로 張介賓은 ‘從陰引陽, 從陽引陰’을 ‘陰虛內熱(陽病治陰), 陽虛外寒(陰病治陽)’과 같은 虛證에 부득이 淸熱, 逐寒처럼 實證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正治해서는 안 되고, 滋陰, 溫陽처럼 虛證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反治로서 활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는 ‘從陰引陽, 從陽引陰’에 대한 활용을 더 확대하여, 精氣互根의 治法을 예로 들어 『類經(上)疾病類五實五虛死附虛損治法』과 『景岳全書傳忠錄陽不足再辨』에서 “精이 氣로 인하여 虛한 경우는 오로지 氣를 補함으로써 精을 생기게 함이 마땅하다. 또한 陽이 陰을 잃어서 떠난 경우는 補陰이 아니면 어찌 흠어진 氣를 거둘 수 있으며, 水가 火를 잃어서 敗한 경우는 補火가 아니면 어찌 寂寞을 따른 陰을 甦生케 할 수 있겠는가! 이는 또한 陰陽을 서로 다 스러야하는 妙用이다.”³⁶⁾³⁷⁾라고 하였다.

이로써 그는 ‘從陰引陽’을 陰虛로 虛陽이 浮越할 때 陽을 正治하지 않고 陰을 反治하는 원칙으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從陽引陰’을 氣虛로 인해 精이 虛할 때 精을 正治하지 않고 氣를 反治하는 원칙 등으로 삼았음을 알 수 있다.

그는 『類經(上)疾病類五實五虛死附虛損治法』과 『景岳全書傳忠錄陽不足再辨』에서 ‘從陰引陽, 從陽引

陰’을 활용에 대해 결론적으로 말하기를 “陽을 잘 補하는 자는 반드시 陰中에서 陽을 求하니 陽이 陰의 도움을 얻어서 生化가 無窮하고, 陰을 잘 補하는 자는 반드시 陽中에서 陰을 求하니 陰이 陽의 도움을 얻어서 源泉이 고갈되지 못한다. 내가 그러므로 가로되 精과 氣로써 陰陽을 구분하면 陰陽에서 가히 벗어나지 못하고, 寒과 熱로써 陰陽을 나누면 陰陽을 가히 혼동하지 못하니, 이것 또한 陰陽과 正邪가 分離되거나 合함이다.”³⁸⁾³⁹⁾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그가 말한 ‘陰中求陽’은 ‘從陽引陰’과 같고 ‘陽中求陰’은 ‘從陰引陽’과 같다는 점이다. ‘陽中求陰’에서 ‘求陰’은 ‘從陰’에 해당하고 ‘陽中’은 ‘引陽’에 해당하고, ‘陰中求陽’에서 ‘求陽’은 ‘從陽’에 해당하므로 ‘陰中’은 ‘引陰’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윤⁴⁰⁾은 張景岳이 『素問陰陽應象大論』의 ‘從陰引陽, 從陽引陰’의 治法을 결합하여 ‘陰中求陽’, ‘陽中求陰’, ‘精中生氣’, ‘氣中生精’의 大法를 제기하여 左歸飲, 右歸飲 등의 處方을 만들었다고⁴¹⁾ 기술한 내용은 위의 여러 글들에 근거한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從陰引陽’을 ‘火中取水’의 원칙에 적용함으로써 ‘引火歸源’, ‘納氣歸腎’의 治法과 연결하여 補陰配陽의 원칙으로 해석하여 陰虛內熱에 辛燥 또는 苦寒한 藥으로 淸熱하는 대신에 純甘(甘涼)壯水之劑를 사용하여 虛火를 내렸다.

또한 ‘從陽引陰’을 ‘水中取火’의 원칙에 적용함으로써 ‘求汗於血’, ‘生氣於精’의 治法과 연결하여 ‘補陽配陰’의 원칙으로 해석하여 陽虛外寒에 涼潤 또는

36) 張介賓. 類經(上)疾病類. 大星文化社. 서울. 1990. p.308. “是以氣虛者宜補其上 精虛者宜補其下 陽虛者宜補而兼暖 陰虛者宜補而兼清 此因陰陽之治辨也 其有氣因精而虛者 自當補精以化氣 精因氣而虛者 自當補氣以生精 又如陽失陰而離者 非補陰何以收散亡之氣 水失火而敗者 非補火何以甦隨寂之陰 此又陰陽相濟之妙用也”

37) 張介賓. 景岳全書傳忠錄. 法仁文化社. 서울. 2007. p.76. “是以氣虛者宜補其上 精虛者宜補其下 陽虛者宜補而兼暖 陰虛者宜補而兼清 此因陰陽之治辨也 其有氣因精而虛者 自當補精以化氣 精因氣而虛者 自當補氣以生精 又如陽失陰而離者 非補陰何以收散亡之氣 水失火而敗者 非補火何以甦隨寂之陰 此又陰陽相濟之妙用也”

38) 張介賓. 類經(上)疾病類. 大星文化社. 서울. 1990. p.308. “故善補陽者 必於陰中求陽 則陽得陰助而生化無窮 善補陰者 必於陽中求陰 則陰得陽升而源泉不竭 故以精氣分陰陽 則陰陽不可離 以寒熱分陰陽 則陰陽不可混 此又陰陽邪正之離合也”

39) 張介賓. 景岳全書傳忠錄. 法仁文化社. 서울. 2007. p.76. “善補陽者, 必於陰中求陽, 則陽得陰助, 而生化無窮; 善補陰者, 必於陽中求陰, 則陰得陽升, 而源泉不竭. 余故曰: 以精氣分陰陽, 則陰陽不可離; 以寒熱分陰陽, 則陰陽不可混, 此又陰陽邪正之離合也.”

40) 尹暢烈 編譯. 韓中醫學各家學說. 대전. 周珉出版社. 2006. p.151.

41) 尹暢烈 編譯. 韓中醫學各家學說. 대전. 周珉出版社. 2006. p.151.

辛散한 藥을 사용하는 대신에 甘溫益火之品을 사용하여 沈寒이 사라지게 했다.

이때 純甘(甘涼)과 甘溫은 모두 土에 속하여 陰과 陽을 두루 갖추고 있으므로 壯水之劑와 함께 사용하면 陽味로 작용하고 益火之品과 함께 사용하면 陰味로 작용한다고 이해하면, 금⁴²⁾이 설명한 “從陽引陰은 陰病治陽(補陰配陽에 해당)과 같은데 陽虛外寒과 같은 證에 溫中補陽의 方法을 활용하는 것이고, 從陰引陽은 陽病治陰(補陽配陰에 해당)과 같은데 陰虛內熱과 같은 證에 滋陰의 方法을 활용하는 것”⁴³⁾과 일치한다.

그가 말한 ‘從陰引陽’과 ‘陽病治陰’의 개념을 水火相濟, 精氣互根의 원리를 적용하여 나타내면 그림 7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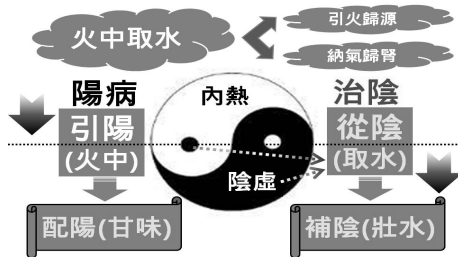


그림 7. 張介賓의 ‘從陰引陽’과 ‘陽病治陰’

또, ‘從陽引陰’과 ‘陰病治陽’의 개념을 水火相濟, 精氣互根의 원리를 적용하여 나타내면 그림 8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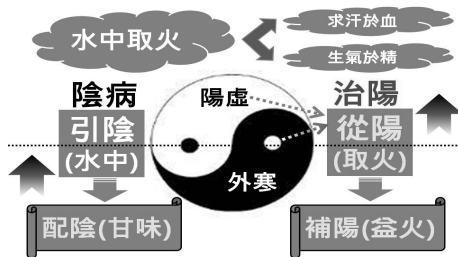


그림 8. 張介賓의 ‘從陽引陰’과 ‘陰病治陽’

8. 張志聰의 견해

張志聰은 ‘從陰引陽, 從陽引陰’에 대해 刺鍼 原則으로 이해하여 “이것은 鍼을 사용하는 자가 마땅히 陰陽에서 法을 取해야 함을 말한 것이다. 무릇 陰陽, 氣血, 內外, 左右가 서로서로 貫通하므로 鍼을 잘 사용하는 자는 陰을 따라 행하여(從陰) 陽分의 邪를 물러가게(引) 하고, 陽을 따라 행하여(從陽) 陰分의 邪를 물러가게(引) 한다.”⁴⁴⁾고 하였다.

그는 또한 ‘陽病治陰, 陰病治陽’에 대해 대체로 馬蒔의 견해를 따랐다.⁴⁵⁾

그가 말한 ‘從陰引陽’과 ‘陽病治陰’의 개념을 나타내면 그림 5, 그림 6과 같다.

9. 高世栻의 견해

高世栻은 ‘從陰引陽, 從陽引陰’에 대해 刺鍼 原則으로 이해하여 “鍼을 잘 사용하여 치료하는 자는 陽病은 반드시 陰으로 行하는 줄을 아니 마땅히 陰을 따라서 행하여(從陰) (陽邪를) 물러가게(引) 해서 陽分에서 나가게 하고, 陰病은 반드시 陽으로 行하는 줄을 아니 마땅히 陽을 따라서 행하여(從陽) (陰邪를) 물러가게(引) 해서 陰分에서 떠나게 한다.”⁴⁶⁾고 하였으니, 張志聰의 견해와 비슷하다.

그는 또한 ‘陽病治陰, 陰病治陽’에 대해 “陽盛則陰虛, 故陽病當治其陰, 陰盛則陽虛, 故陰病當治其陽.”⁴⁷⁾이라고 하였으니, ‘陽病’과 ‘陰病’은 각각 ‘陽勝’과 ‘陰勝’의 결과로 나타나는 陰虛陽虛를 지적인

44) 張志聰. 素問集註. 大星文化社. 서울. 1994. p.61. “此言用鍼者, 當取法乎陰陽也. 夫陰陽氣血內外左右, 交相貫通, 故從陰而引陽分之邪, 從陽而引陰分之氣.”

45) 張志聰. 素問集註. 大星文化社. 서울. 1994. p.42. “馬氏曰 用酸苦之味, 至於太過則陰勝矣, 陰勝則吾人之陽分不能敵陰寒, 而陽斯病也. 用辛甘之味, 至於太過則陽盛矣, 陽勝則吾人之陰分不能敵陽熱, 而陰斯病也. 所謂陽勝則陰病者, 何也. 以陽勝則太熱, 彼陰分安得不病乎. 所謂陰勝則陽病者, 何也. 以陰勝則太寒彼陽分安得不病乎.”

46) 高世栻. 黃帝素問直解. 科學技術文獻出版社. 中國 北京. 1982. p.50. “善用鍼以治之者, 知陽病必行於陰也, 當從陰以引之 而出於陽; 知陰病必行於陽也, 當從陽以引之 而離於陰.”

47) 高世栻. 黃帝素問直解. 科學技術文獻出版社. 中國 北京. 1982. p.52. “陽盛則陰虛, 故陽病當治其陰, 陰盛則陽虛, 故陰病當治其陽.”

42) 금경수, 김기욱 외 26인. 新編醫學漢文. 大田. 周珉出版社. 2009. p.124.

43) 금경수, 김기욱 외 26인. 新編醫學漢文. 大田. 周珉出版社. 2009. p.124.

것이다.

이때 ‘陽勝’은 氣味の 陰陽의 太過를 가리키고, ‘陽病’과 ‘陰病’은 陽分 또는 陰分이 병들면 결국 상대인 陰分 또는 陽分까지 영향을 미쳐 서로 병들게 하는 것이라고⁴⁸⁾ 하였으니, 馬蒔의 견해와 비슷하다.

그가 말한 ‘從陰引陽’과 ‘陽病治陰’의 개념을 나타내면 그림 5, 그림 6과 같다.

10. 喻嘉言의 견해

喻嘉言은 ‘從陰引陽, 從陽引陰’에 대해 『寓意草論金道賓眞陽上脫之症』에서 ‘從陰引陽, 從陽引陰’에 대한 활용으로 用藥 原則을 예로 들어 “陽이 上脫하려고 할 때 陰이 아래에서 끌어들이면 上脫하지 않고, 陰이 下脫하려고 할 때 陽이 위에서 끌어들이면 下脫하지 않는다. …… 대개 上脫하는 자는 헛것을 보고 헛것을 들어서 귀신들린 듯하고, 下脫하는 자는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어서 귀머거리와 같다. 上脫하는 자는 몸이 경쾌하고 땀이 줄줄 나고, 下脫하는 자는 몸이 무겁고 살이 푸르스름하다. …… 上脫한 경우는 七分의 陽藥과 三分의 陰藥을 사용하되 밤에 복용하니 **陰을 따르고 그 陽을 끌어들이는 것**이고, 下脫한 경우는 七分의 陰藥과 三分의 陽藥을 사용하되 낮에 복용하니 **陽을 따르고 그 陰을 끌어들이는 것**이다.”⁴⁹⁾라고 하였다.

이로써 喻嘉言은 ‘從陰引陽’을 眞陽이 亡越한 上脫의 治法에 응용하여 七分의 陽藥과 三分의 陰藥을 사용하되 밤에 복용하고, ‘從陽引陰’을 陰精이 고갈된 下脫의 治法에 응용하여 七分의 陰藥과 三分의

陽藥을 사용하되 낮에 복용하여 치료하였음을 알 수 있다.

喻嘉言이 用藥 原則으로 활용한 예는, 앞서 張介賓이 ‘從陰引陽’을 補陰配陽의 원칙으로 해석하여 陰虛內熱에 純甘(甘涼)壯水之劑를 사용하여 虛火가 내려가게 하고, ‘從陽引陰’을 補陽配陰의 원칙으로 해석하여 陽虛外寒에 甘溫益火之品을 사용하여 沈寒이 사라지게 한 것과 相反되거나 전혀 다름을 알 수 있다.

그가 말한 ‘從陰引陽’과 ‘陽病治陰’의 개념을 간략히 나타내면 그림 9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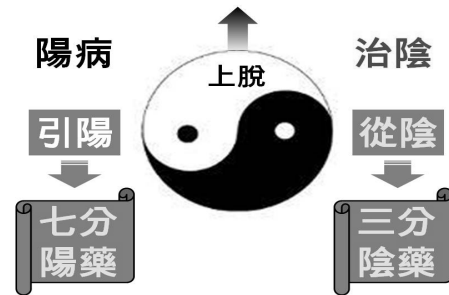


그림 9. 喻嘉言의 ‘從陰引陽’과 ‘陽病治陰’

11. 吳師機의 견해

吳師機는 ‘從陰引陽, 從陽引陰’과 ‘陽病治陰, 陰病治陽’에 대해 『理論駢文』에서 “方書에 ‘從陽引陰, 從陰引陽’이라고 하고 또 ‘陽病取陰, 陰病取陽’이라고 하고 또 ‘陰中求陽, 陽中求陰’이라고 하니 대개 陰陽互根하기 때문이다.”⁵⁰⁾라고 하였다.

‘陽病取陰, 陰病取陽’은 ‘陽病治陰, 陰病治陽’과 동일하다고 본다면, ‘從陰引陽, 從陽引陰’과 ‘陽病治陰, 陰病治陽’을 모두 ‘陰陽互根’의 범주로 이해하였음을 알 수 있다.

48) 高世拭. 黃帝素問直解. 科學技術文獻出版社. 中國 北京. 1982. p.39. “陰勝則陽病者, 酸苦之味太過, 則陰勝而陽斯病矣, 陽勝則陰病者, 辛甘之味太過, 則陽勝而陰斯病矣. 夫陽勝則過熱, 陰勝則過寒, 今陰勝則陽病, 乃重寒則熱之義也. 陽勝則陰病, 乃重熱則寒之義也.”

49) 喻嘉言. 喻嘉言醫學三書·寓意草. 江西人民出版社. 中國 南昌. 1984. pp.716-718. “陽欲上脫, 陰下吸之, 不能脫也. 陰欲下脫, 陽上吸之, 不能脫也. …… 蓋上脫者, 妄見妄聞, 有如神靈, 下脫者, 不見不聞, 有如瞽. 上脫者, 身輕快而汗多淋漓, 下脫者, 身重著而肉多青紫. …… 上脫者, 用七分陽藥, 三分陰藥而夜服, 從陰以引其陽, 下脫者, 用七分陰藥, 三分陽藥而晝服, 從陽以引其陰.”

50) 吳尚先. 理論駢文. 中國中醫藥出版社. 中國 北京. 2007. “寒佐熱佐(如治寒脹者 用吳萸乾薑 佐之以黃連 是熱因寒用也 治熱秘 用知柏佐以桂 是寒因熱用也) 通用塞用(如治渴用五苓 治病用大黃枳實 是通因通用也 治滿 用白朮甘草及四君子 補中益氣 是塞因塞用也) 陰陽上下升降 不膠於治(方書云 從陽引陰 從陰引陽 又曰陽病取陰 陰病取陽 又曰陰中求陽 陽中求陰 蓋陰陽互根也)”

Ⅲ. 考 察

1. '陰陽'의 의미

① 經脈의 陰陽으로 해석

楊上善은 “사람의 陰陽 二經은 陰經이 만약 實하면 陽經이 반드시 虛하고 陽經이 만약 實하면 陰經이 반드시 虛하므로 陽虛로 병든 자는 瀉陰이 마땅하고 陰實로 병든 자는 補陽이 마땅하다.”⁵¹⁾라고 하였다.

② 表裏, 前(腹募穴)-後(背輸穴)로 해석

馬蒔는 “밖에 있는 것은 表가 되고 안에 있는 것은 裏가 되며, 表에 있는 것은 陽이 되고 裏에 있는 것은 陰이 됨을 말하였다.”⁵²⁾고 하였다.

또 그는 “『難經六十七難』에 가로되, …… 陰病은 陽으로 行하고 陽病은 陰으로 行하므로 募穴로 하여금 陰에 있고 輸穴로 하여금 陽에 있게 한다고 하였다. …… 그러나 鍼法의 ‘從陰引陽, 從陽引陰’은 이것에만 그치지 않는다. ⁵³⁾라고 하였다.

③ 陰分陽分으로 해석

張志聰은 “이것은 鍼을 사용하는 자가 마땅히 陰陽에서 法을 取해야 함을 말한 것이다. 무릇 陰陽, 氣血, 內外, 左右가 서로 서로 貫通하므로 鍼을 잘 사용하는 자는 陰을 따라서 陽分의 邪를 끌어들이고, 陽을 따라서 陰分의 邪를 끌어낸다.”⁵⁴⁾고 하였다

다.

高世栻은 “鍼을 잘 사용하여 치료하는 자는 陽病은 반드시 陰으로 行하는 줄을 아니 마땅히 陰을 따라서 行하여(從陰) (陽邪를) 물러나게(引) 해서 陽分에서 나가게 하고, 陰病은 반드시 陽으로 行하는 줄을 아니 마땅히 陽을 따라서 行하여(從陽) (陰邪를) 물러나게(引) 해서 陰分에서 떠나게 한다.”⁵⁵⁾라고 하였다.

張介賓은 “從陰引陽이란 것은 病이 陽에 있거늘 그 陰을 다스리는 것이고, 從陽引陰이란 것은 病이 陰에 있거늘 그 陽을 다스리는 것이다.”⁵⁶⁾라고 하였다.

④ 氣味の 陰陽으로 해석

李東垣은 ‘陰病在陽’을 ‘從陽引陰’의 원칙으로 치료하고 ‘陽病在陰’을 ‘從陰引陽’의 원칙으로 치료하였다.

특히 ‘陽病在陰’에 속하는 內傷病은 ‘從陰引陽’의 원칙에 따라서 치료하니, 下焦에 들어가는 藥(陰味)을 사용하는 것은 ‘從陰’에 속하고 甘多辛少한 藥(陽味)을 약간 더하여 위로 이끄는 것은 ‘引陽’에 속한다고 분석했다.

⑤ 精氣, 汗·血, 水·火 등으로 해석

張介賓은 ‘從陰引陽’을 陰虛로 虛陽이 浮越할 때 陽을 正治하지 않고 陰을 反治하는 원칙으로 삼았고, ‘從陽引陰’을 氣虛로 인해 精이 虛할 때 精을 正治하지 않고 氣를 反治하는 원칙으로 삼았다.

그는 ‘求汗於血’ ‘生氣於精’은 水中取火, 즉 從陽引陰에 해당되고, ‘引火歸源’과 ‘納氣歸腎’은 火中取水, 즉 從陰引陽에 해당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從陰’은 ‘取水’에 해당하므로 ‘引○歸源’과 ‘納○歸腎’을 가리키며, ‘引陽’은 ‘火中’에 해당하므로

故從陰而引陽分之邪, 從陽而引陰分之氣.”

55) 高世栻. 黃帝素問直解. 科學技術文獻出版社. 中國 北京. 1982. p.50. “善用鍼以治之者, 知陽病必行於陰也, 當從陰以引之 而出於陽; 知陰病必行於陽也, 當從陽以引之 而離於陰.”

56) 張介賓. 類經(上)論治類. 大星文化社. 서울. 1990. p.237. “從陰引陽者, 病在陽而治其陰也; 從陽引陰者, 病在陰而治其陽也.”

51) 楊上善. 黃帝內經太素. 大星文化社. 서울. 1991. p.34. “陰經受邪, 流入陽經爲病, 是爲陰經爲本, 陽經爲標. 療其本者, 療於陰經, 即陽病療陰也. 陽經受邪, 準陰療陽也, 即陰病療陽也. 人陰陽二經, 陰經若實, 陽經必虛, 陽經若實, 陰經定虛, 故陽虛病者宜瀉陰, 陰實病者宜補陽也.”
52) 馬蒔. 黃帝內經素問注證發微. 大星文化社. 서울. 1994. p.51. “在外爲表, 在內爲裏, 在表爲陽, 在裏爲陰.”
53) 馬蒔. 黃帝內經素問注證發微. 大星文化社. 서울. 1994. p.51. “難經六十七難曰 五藏募皆在陰, 而俞在陽者, 何謂也. 然陰病行陽, 陽病行陰, 故令募在陰, 俞在陽. 此乃指背腹爲陰陽特一端耳. 然鍼法之從陰引陽, 從陽引陰, 不止於此. 靈樞終始禁服四時氣篇: 人迎脈盛, 爲陽經病, 則瀉陽補陰; 氣口脈盛, 爲陰經病, 則瀉陰補陽, 補瀉施而陰陽和, 亦從陰引陽, 從陽引陰之法也.”
54) 張志聰. 素問集註. 大星文化社. 서울. 1994. p.61. “此言用鍼者, 當取法乎陰陽也. 夫陰陽氣血內外左右, 交相貫通,

‘火’와 ‘氣’를 가리킨다.

또한 ‘從陽’은 ‘取火’에 해당하므로 ‘求汗’과 ‘生氣’를 가리키며, ‘引陰’은 ‘水中’에 해당하므로 ‘於血’과 ‘於精’을 가리킨다.

2. ‘從’의 의미

‘從’의 해석은 대체로 아래와 같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隨行’의 뜻과 같으니⁵⁷⁾, ‘~를 따라서 行하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馬蒔⁵⁸⁾, 張志聰⁵⁹⁾, 高世祚⁶⁰⁾은 “陰을 따라서 행하여(從陰) 陽分의 邪를 물러나게 하고(引陽), 陽을 따라서 행하여(從陽) 陰分의 邪를 물러나게 한다(引陰).”고 하였다.

특히 주의할 점은, 그들은 ‘從’을 ‘隨行’의 뜻으로 해석하였지, ‘自’字의 뜻⁶¹⁾, 즉 ‘~로부터’라고 해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둘째, ‘治’字 또는 ‘補’字와 같으니 ‘다스리다’ ‘補하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張介賓은 “‘從陰引陽’이란 病이 陽에 있거늘 그 陰을 다스리는 것이고, ‘從陽引陰’이란 病이 陰에 있거늘 그 陽을 다스리는 것이다.”⁶²⁾라고 하였으니,

그는 ‘從’을 ‘治’의 뜻으로 해석하였다.

그는 또 “陰虛로 陰虛內熱이 많은 자는 …… 補陰하여 配陽하면 剛이 柔에게 제압되어 虛火가 스스로 내려서 陽이 陰에게 돌아온다. 陽虛로 外寒이 많은 자는 …… 補陽하여 配陰하면 柔가 그 주인을 얻어서 沈寒이 스스로 거뒀 陰이 陽을 따른다.”⁶³⁾고 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張介賓이 ‘從陰引陽(陽病治陰에 해당)’을 補陰配陽의 원칙으로 이해하고 ‘從陽引陰(陰病治陽에 해당)’을 ‘補陽配陰’의 원칙으로 이해했으므로, ‘從’을 ‘補’字의 뜻으로 해석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瀉’字와 같으니 ‘實을 瀉한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楊上善은 “厥陰이 實하고 少陽이 虛하면 厥陰을 瀉하고 少陽을 補하는 것이 곧 ‘從陰引陽’이다. 만약 少陽이 實하고 厥陰이 虛하면 少陽을 瀉하고 厥陰을 補하는 것이 곧 ‘從陽引陰’이다.”⁶⁴⁾라고 하였으니, 그는 ‘從’을 ‘瀉’의 뜻으로 이해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引’의 의미

‘引’의 해석은 대체로 아래와 같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退’자의 뜻과 같으니⁶⁵⁾, ‘~를 물러가게 하다.’로 해석할 수 있다.

馬蒔⁶⁶⁾, 張志聰⁶⁷⁾, 高世祚⁶⁸⁾은 “陰을 따라서 행

57) 民衆書林 編輯局 篇. 漢韓大字典. 民衆書林. 서울. 2003. p.726.

58) 馬蒔. 黃帝內經素問注證發微. 大星文化社. 서울. 1994. p.51. “此言善鍼者之有法也. 上文言由皮毛而漸入藏府, 則在外爲表, 在內爲裏, 在表爲陽, 在裏爲陰. 善用鍼者, 知陽病必行於陰也, 故從陰以引之而出於陽; 知陰病必行於陽也, 故從陽以引之而入於陰.”

59) 張志聰. 素問集註. 大星文化社. 서울. 1994. p.61. “此言用鍼者, 當取法乎陰陽也. 夫陰陽氣血內外左右, 交相貫通, 故從陰而引陽分之邪, 從陽而引陰分之氣.”

60) 高世祚. 黃帝素問直解. 科學技術文獻出版社. 중국 北京. 1982. p.50. “善用鍼以治之者, 知陽病必行於陰也, 當從陰以引之 而出於陽; 知陰病必行於陽也, 當從陽以引之 而離於陰.”

61) 民衆書林 編輯局 篇. 漢韓大字典. 民衆書林. 서울. 2003. p.726.

62) 張介賓. 類經(上)論治類. 大星文化社. 서울. 1990. p.237. “善用鍼者, 必察陰陽. 陰陽之義, 不止一端, 如表裏也, 氣血也, 經絡也, 藏府也, 上下左右有分也, 時日衰王有辨也. 從陰引陽者, 病在陽而治其陰也; 從陽引陰者, 病在陰而治其陽也.”

63) 張介賓. 類經(上)疾病類. 大星文化社. 서울. 1990. p.308. “治虛之要 凡陰虛多熱者 最嫌辛燥 恐助陽邪也 尤忌苦寒 恐伐生陽也 惟喜純甘壯水之劑 補陰以配陽 則剛爲柔制 虛火自降 而陽歸乎陰矣 陽虛多寒者 最嫌涼潤 恐助陰邪也 尤忌辛散 恐傷陰氣也 只宜甘溫益火之品 補陽以配陰 則柔得其主 沈寒自斂 而陰從乎陽矣”

64) 楊上善. 黃帝內經太素. 大星文化社. 서울. 1991. p.32. “肝臟足厥陰脈實, 肝膽腑足少陽脈虛, 須瀉厥陰以補少陽, 卽從陰引陽也. 若少陽實, 厥陰虛, 須瀉少陽以補厥陰, 卽從陽引陰也. 餘例準此.”

65) 民衆書林 編輯局 篇. 漢韓大字典. 民衆書林. 서울. 2003. p.702.

66) 馬蒔. 黃帝內經素問注證發微. 大星文化社. 서울. 1994. p.51. “此言善鍼者之有法也. 上文言由皮毛而漸入藏府, 則在外爲表, 在內爲裏, 在表爲陽, 在裏爲陰. 善用鍼者, 知陽

하여(從陰) **陽分의 邪를 몰러나게 하고(引陽)**, 陽을 따라서 행하여(從陽) **陰分의 邪를 몰러나게 한다(引陰).**”고 하였으니, 그들은 ‘引’의 뜻을 ‘몰러가게 하다.’라고 해석하였다.

둘째, ‘~를 끌어들이다.’ 또는 ‘~을配合하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

唯嘉言은 上脫한 경우는 七分의 陽藥과 三分의 陰藥을 사용하되 밤에 복용하니 陰을 따르고 **그 陽을 끌어들이는 것**이고, 下脫한 경우는 七分의 陰藥과 三分의 陽藥을 사용하되 낮에 복용하니 陽을 따르고 **그 陰을 끌어들이는 것**이다.”⁶⁹⁾라고 하였다.

張介賓은 “陰虛로 內熱이 많은 자는 …… 補陰하여 **配陽하면** 剛이 柔에게 제압되어 虛火가 스스로 내려서 陽이 陰에게 돌아온다. 陽虛로 外寒이 많은 자는 …… 補陽하여 **配陰하면** 柔가 그 주인을 얻어서 沈寒이 스스로 거뒀 陰이 陽을 따른다.”⁷⁰⁾고 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張介賓이 ‘從陰引陽(陽病治陰에 해당)’을 補陰配陽의 원칙으로 해석하고 ‘從陽引陰(陰病治陽에 해당)’을 ‘補陽配陰’의 원칙으로 이해했으므로, ‘引’을 配合한다는 ‘配’字의 뜻으로 해

석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補’字와 같으니 ‘虛를 補한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楊上善은 “少陽이 實하고 厥陰虛하면 少陽을 瀉하고 厥陰을 **補하는 것**이 곧 ‘從陽引陰’이다. 만약 少陽이 實하고 厥陰이 虛하면 少陽을 瀉하고 厥陰을 **補하는 것**이 곧 ‘從陽引陰’이다.”⁷¹⁾라고 하였으니, 그는 ‘引’을 ‘補’의 뜻으로 해석하였음을 알 수 있다.

4. ‘從陰(陽)’과 ‘引陽(陰)’을 한 가지로 보는가, 두 가지로 보는가?

‘從’과 ‘引’의 세 가지 해석 중 각각 첫 번째를 따르면, ‘從 A’와 ‘引 B’는 ‘A를 따라서 행하여 B를 몰러가게 하다’라는 한 가지 행위로 볼 수 있다.

이와 방식으로 해석한 醫家는 馬蒔, 吳昆, 張志聰, 高世栻 등이 있다.

이들은 결국 ‘從陰’과 ‘引陽’을 합하여 ‘養陰’의 한 가지 행위로 보고 ‘從陽’과 ‘引陰’을 합하여 ‘壯陽’의 한 가지 행위로 보았다.

‘從’과 ‘引’의 세 가지 해석 중 각각 두 번째와 세 번째를 따르면, ‘從陰(陽)’과 ‘引陽(陰)’을 따로 떼어 ‘補陰(陽)’과 ‘配陽(陰)’ 및 ‘瀉陰(陽)’과 ‘補陽(陰)’ 등의 두 가지 행위로 볼 수 있다.

이와 방식으로 해석한 醫家는 楊上善, 李東垣, 張介賓, 唯嘉言 등이 있다.

다만, ‘從陰(陽)’과 ‘引陽(陰)’에 대한 그들의 관점이 서로 같지 않으며, 각각 다른 臨床理論으로 활용하였다.

5. ‘從陰引陽, 從陽引陰’의 임상 활용

(1) 臟腑 虛實의 治法

孫思邈은 『備急千金要方』에서 “무릇 陽邪는 五臟을 해치고 陰邪는 六腑를 손상시킨다. 陽이 實하면

病必行於陰也。故從陰以引之而出於陽；知陰病必行於陽也，故從陽以引之而入於陰。”

67) 張志聰. 素問集註. 大星文化社. 서울. 1994. p.61. “此言用鍼者，當取法乎陰陽也。夫陰陽氣血內外左右，交相貫通，故從陰而引陽分之邪，從陽而引陰分之氣。”

68) 高世栻. 黃帝素問直解. 科學技術文獻出版社. 중국 北京. 1982. p.50. “善用鍼以治之者，知陽病必行於陰也，當從陰以引之 而出於陽；知陰病必行於陽也，當從陽以引之 而離於陰。”

69) 唯嘉言. 唯嘉言醫學三書·寓意草. 江西人民出版社. 中國 南昌. 1984. pp.716-718. “陽欲上脫，陰下吸之，不能脫也，陰欲下脫，陽上吸之，不能脫也 …… 蓋上脫者，妄見妄聞，有如神靈，下脫者，不見不聞，有如瞶，上脫者，身輕快而汗多淋漓，下脫者，身重著而肉多青紫 …… 上脫者，用七分陽藥，三分陰藥而夜服，從陰以引其陽，下脫者，用七分陰藥，三分陽藥而晝服，從陽以引其陰。”

70) 張介賓. 類經(上)疾病類. 大星文化社. 서울. 1990. p.308. “治虛之要 凡陰虛多熱者 最嫌辛燥 恐助陽邪也 尤忌苦寒 恐伐生陽也 惟喜純甘壯水之劑 補陰以配陽 則剛爲柔制 虛火自降 而陽歸乎陰矣 陽虛多寒者 最嫌涼潤 恐助陰邪也 尤忌辛散 恐傷陰氣也 只宜甘溫益火之品 補陽以配陰 則柔得其主 沈寒自斂 而陰從乎陽矣”

71) 楊上善. 黃帝內經太素. 大星文化社. 서울. 1991. p.32. “肝臟足厥陰脈實，肝腑膽足少陽脈虛，須瀉厥陰以補少陽，即從陰引陽也。若少陽實，厥陰虛，須瀉少陽以補厥陰，即從陽引陰也。餘例準此。”

‘從陰引陽’하고 陰이 虛하면 ‘從陽引陰’한다.”⁷²⁾라고 하였으니, 그는 ‘從陰引陽, 從陽引陰’을 陰陽의 邪氣로 臟腑의 虛實이 발생할 때 치료하는 원칙으로 응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刺鍼 原則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馬蒔는 ‘從陰引陽, 從陽引陰’을 『難經』의 配穴原則에 근거하여 ‘以前治後, 以後治前’하는 配穴 원칙으로 확대하여 활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素問陰陽應象大論』의 文脈에 따라 楊上善, 吳昆, 張介賓, 張志聰, 高世栻 등의 대부분의 醫家들이 刺鍼 原則으로 이해하였다.

(3) 內傷의 治法

진주표는 『脾胃論陰病治陽陽病治陰』의 내용에 대해 “李東垣의 從陰引陽의 治법을 確연하게 確인할 수 있는 것은, 風藥으로 膽氣를 상승시켜 陰火를 내리는 것이다.”⁷³⁾라고 하였으나, ‘從陰引陽’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지 않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從陰’은 下焦에 들어가는 藥을 사용하는 것(陰味)을, ‘引陽’은 甘多辛少한 藥(陽味)을 약간 더하는 것을 지적인 것이다.

(4) 虛症의 寒熱症에 대한 反治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張介賓은 ‘陰陽互根’하므로 ‘從陰引陽’을 陰虛로 虛陽이 浮越할 때 陽을 正治하지 않고 陰을 反治하는 원칙으로 삼았다.

그는 더 나아가서 ‘從陰引陽’을 ‘火中取水’에 확

장하여 적용함으로써 ‘引火歸源’, ‘納氣歸腎’의 治法과 연결하였고, ‘從陽引陰’을 ‘水中取火’에 확장하여 적용함으로써 ‘求汗於血’, ‘生氣於精’의 治法과 연결하였다.

즉 ‘水火相濟’ ‘精氣互根’하므로 ‘從陽引陰’을 氣虛로 인해 精이 虛할 때 精을 正治하지 않고 氣를 反治하는 등의 治法으로 삼았다.

(5) 脫症의 治法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喻嘉言은 ‘從陰引陽’을 眞陽이 亡越한 上脫의 治法에 활용하여 七分의 陽藥과 三分의 陰藥을 사용하되 밤에 복용하고, ‘從陽引陰’을 陰精이 고갈된 下脫의 治法에 활용하여 七分의 陰藥과 三分의 陽藥을 사용하되 낮에 복용하여 치료하였다.

IV. 結 論

이상에서 『素問陰陽應象大論』의 ‘從陰引陽, 從陽引陰’에 대해 해석과 활용의 측면에서 歷代 注釋家와 臨床家의 견해를 서로 比較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從陰引陽, 從陽引陰’은 곧 ‘陽病治陰, 陰病治陽’의 治療原則이다. ‘從陰引陽’은 ‘陽病治陰’에 해당되며 ‘從陽引陰’은 ‘陰病治陽’에 해당된다.

2. ‘陰陽’은 각각 經脈의 陰陽, 表裏, 陽分陰分, 內傷外感, 精氣, 汗血, 水火 등으로 해석할 수 있다.

3. ‘從’과 ‘引’을 각각 세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從’을 ‘~로부터(自)’라는 뜻으로 해석하지 않고, ‘~를 따라서 행하다’ 또는 ‘다스리다(補하다)’ 또는 ‘實을 瀉하다’로, ‘引’을 ‘~를 물러가게 하다’ 또는 ‘~를 끌어들이다(配合하다)’ 또는 ‘虛를 補하다’로 해석할 수 있다.

4. 세 가지 해석 중, 각각 첫 번째 해석을 따르

72) 孫思邈, 備急千金要方. 大星文化社. 서울. 1992. p.600.
“凡陽邪害五臟, 陰邪損六腑, 陽實則從陰引陽, 陰虛則從陽引陰. 若陽病者主高, 高則實, 實則熱, 眼視不明, 齒焦髮脫, 腹中滿滿, 則唇節痛痛, 則宜瀉於內. 若陰病者主下, 下則虛, 虛則寒, 體重則腎水生, 耳聾行步不正. 邪氣入內, 行於五臟則咳, 咳則多涕唾, 面腫氣逆, 邪氣逆於六腑, 淫虛厥於五臟, 故曰精極也. 所以形不足溫之以氣, 精不足補之以味. 善治精者, 先治肌膚筋脈, 次治六腑. 若邪至五臟, 已半死矣. 扁鵲曰: 五陰氣俱絕不可治, 絕則目系轉, 轉則目精奪, 爲志先死, 遠至一日半日, 非醫所及矣. 宜須精研以表治裏, 以左治右, 以右治左, 以我知彼, 疾皆瘥矣”

73) 진주표, 李東垣 內外傷辨의 醫史學的 考察.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pp.18-19.

면, ‘從陰’과 ‘引陽’을 합하여 養陰의 한 가지 행위로, ‘從陽’과 ‘引陰’을 합하여 壯陽의 한 가지 행위로 볼 수 있고, 두 번째와 세 번째 해석을 따르면, ‘從陰(陽)’과 ‘引陽(陰)’을 따로 떼어 ‘補陰(陽)’과 ‘配陽(陰)’ 또는 ‘瀉陰(陽)’과 ‘補陽(陰)’ 등의 두 가지 행위로 볼 수 있다.

5. 李東垣은 ‘從陰引陽’을 下焦에 들어가는 陰味(從陰)에 甘多辛少한 陽味(引陽)를 배합하여 內傷病의 內熱을 治療하는 데 활용하였다.

6. 馬蒔는 ‘從陰引陽, 從陽引陰’을 ‘以前治後, 以後治前’으로 腹募穴과 背腧穴을 사용하는 刺鍼原則 및 陽盛陰虛陰盛陽虛에 養陰壯陽하는 用藥原則으로 활용하였다.

7. 張介賓은 ‘從陰引陽, 從陽引陰’을 陰虛內熱(陽病)과 陽虛外寒(陰病)의 虛證에 陰陽互根의 원리에 의하여 滋陰(治陰), 溫陽(治陽)하는 治法과 水火相濟, 精氣互根의 원리에 의하여 補陰配陽(‘引火歸源’ ‘納氣歸腎’ 등의 火中取水)과 補陽配陰(‘求汗於血’ ‘生氣於精’ 등의 水中取水)의 治法으로 활용하였다.

8. 喻嘉言은 ‘從陰引陽, 從陽引陰’을 陽藥과 陰藥의 비율을 조절함으로써 上脫, 下脫의 脫症을 치료하는 데 활용하였다.

參考文獻

<論文>

1. 금경수. 『素問陰陽應象大論』에 對한 研究. 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0.
2. 진주표. 李東垣 內外傷辨의 醫史學的 考察.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pp.18-19.

<單行本>

1. 高世栻. 黃帝素問直解. 科學技術文獻出版社. 中國北京. 1982. p.50, 52.

2. 馬蒔. 黃帝內經素問注證發微. 大星文化社. 서울. 1994. p.38, 51. pp.53-54.
3. 民衆書林 編輯局 篇. 漢韓大字典. 民衆書林. 서울. 2003. p.702, 726.
4. 孫思邈. 備急千金要方. 大星文化社. 서울. 1992. p.600.
5. 楊上善. 黃帝內經太素. 大星文化社. 서울. 1991. p.32, 34.
6. 喻嘉言. 喻嘉言醫學三書寓意草. 江西人民出版社. 中國南昌. 1984. p.717.
7. 윤창열, 이남구, 김선호. 黃帝內經素問 王氷注(上). 주민출판사. 대전. 2003. p.152.
8. 윤창열, 이남구, 김선호. 黃帝內經素問 王氷注(下). 주민출판사. 대전. 2003. p.546.
9. 尹暢烈 編譯. 韓中醫學各家學說. 대전. 周珉出版社. 2006. p.151.
10. 張介賓. 景岳全書傳忠錄. 法仁文化社. 서울. 2007. p.75.
11. 張介賓. 類經(上)論治類. 大星文化社. 서울. 1990. p.237, 238, 308.
12. 張年順 等. 李東垣醫學全書脾胃論. 中國中醫藥出版社. 中國北京. 2006. p.49.
13. 張志聰. 素問集註. 大星文化社. 서울. 1994. p.42, 61.
14.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서울. 1985. p.25, 305.
15.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서울. 1985. p.71.